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 선거판도 요동

새누리·민주당과 차별화
광역단체장 선거에 올인
광주·전남 무소속 난립
민주당 후보 유리할 듯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이 2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세가 한바탕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무공천'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새정치연합 창당준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약이었음을 언급한 뒤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6·4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측을 제외한 각 정당의 후보와 새정치연합 후보임을 표명하는 무소속 후보들 간의 '본선' 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을 표명하는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구도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을 표명하는 입지자들 간 후보 단일화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지역 각 구청장 선거에 나선 새정치연합 측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 1곳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난립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입지자들 사이에 후보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열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최종 후보로 결정되

지 못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과의 본선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한, 기초선거의 경우 지역 특성상 '인물론'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당 바람' 보다는 '인물론'으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광주·전남지역 입지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상당수는 여야의 대선 공약인 만큼 공천 폐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폐지를 촉구했지만, 일부는 향후 선거에서 후보 난립과 후보 단일화 등의 혼선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진선거 광주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안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신원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요체"라며 "당장은 새정치연합 입지자들에게 불리할 것 같지만, 현명한 국민은 그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조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으로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입지자는 "새정치연합 공천을 받으면 민주당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출마를 준비했는데, 안의원이 돌연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해 충격적"이라며 "공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들이 난립하면 필패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김순임 할머니 北 오빠 만났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 둘째날인 24일, 금강산면회소에서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대상자인 김순임(75·서구 내방동·사진 오른쪽)씨가 둘째 오빠 중수(왼쪽 두 번째)씨와 함께 6·25 전쟁 때 헤어진 큰 오빠 권수(82·왼쪽 세 번째)씨를 60년 만에 만나 서로 기쁨을 나눴다. /연합뉴스

'임을 위한 행진곡' 을 기념식선 꼭 부르자

광주시 4월까지 5·18 기념곡 지정 총력전 펼쳐

광주시가 오는 4월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에 오는 4월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에 오는 4월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는데도 현 정부가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늦어도 4월까지 지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음해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이고,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

국방부 땅 276만㎡ 광주시민의 품으로

옛 국군병원·기무부대 등 부지 양여·교환 협약

광주지역내 국방부 소유 땅 276만 5000㎡(83만여평)가 광주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4일 시청 비즈니스트롬에서 국방부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정영진 제1전투비행단장과 '국·공유지 양여·교환협약', '축구공원 건립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날 광주시와 국방부가 양여 및 교환하기로 한 땅은 국방부 소유인 옛 국군광주병원, 옛 기무부대, 마북·중앙공원 일부 토지 등 24만5000㎡와 광주시 소유인 광주공항 인근 서창동 양묘장부지 17만㎡다.

광주시는 국방부로부터 옛 국군광주병원(9만4000㎡·감정가 236억원)과 기무부대(3만3000㎡·75억원) 토지의 절반인 6만3000㎡(155억원)를 무상으로 양여 받고, 나머지 토지는 시 소유 양묘장 부지(137억원)와 교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부지 교환 과정에서 차액으로 발생한 100여여원은 국방부에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옛 국군광주병원과 기무부대 부지는 5·18 사적지로 활용하고, 마북공원과 중앙공원도 도심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국방부 소유인 광산구 신촌동 옛 장암마을 일대 5만8000㎡부

지에 80여억원을 들여 4면짜리 축구장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축구장은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축구 훈련장으로 활용된 뒤 시민에게 개방한다.

이 밖에 시는 평동 군사훈련장(박격포 훈련시설) 246만2000㎡(74만5000여평)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평동 군사훈련장은 장성종합훈련장(상무대)으로 이전한다.

광주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이전 부지인 장성종합훈련장내에 군사훈련장 시설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게 된다. 조성비용은 앞으로 평가될 평동 군사훈련장의 땅값 수준이다. 시는 이전 부지를 산업용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옛 국군광주병원과 옛 기무부대 부지 등을 되찾기 위해 국방부와 수차례 접촉해 왔으며, 지난해 5월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광진 국방부장관이 면담을 통해 국·공유지 양여·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조만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국방부에서 돌려받은 부지를)광주의 미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변호사 수임제한 해제

저는 2013. 2.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사직하고 여러분의 성원 속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법에 따른 전임직 수임제한이 해제되기에 광주고등법원(고등검찰청 포함) 사건에 관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금호고, 서울대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미국 UNC 로스쿨 국비 연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김준성 올림

■ 사무소 : 광주 동구 자선동 714-20 광주지방변호사회관 303호(법원정문 앞)
■ 대표전화 : (062) 233-3030

광주 최고의 주거명작 - 두암동 이스토리 -

성실한 시공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광주의 자량이 되겠습니다.

223㎡/176㎡ (전용면적) 12개동 총 96세대

1566-7293

시행: 대한주거개발(주) 시공: 지구종합건설(주) 분양: |주이너스 산업개발

당신의 삶에는 산이 있습니까?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무등산의 품 그 수려한 산자락에 하늘이 내린 터 하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산이 삶이 되는 곳 - 무등산 이스토리